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 예정자의 어깨는 축 쳐져 있고 그 부모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올해 대졸자들의 취업난도 예년에 비해서 말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취업자중 2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 28%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연말에는 18% 수준까지 하락해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20대 인구 비중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고, 공무원이나 교직, 공기업 등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당장의 취업을 미루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내 공장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이 생겨 일자리가 줄었다. 게다가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경력자를 선호하여 대졸자의 신규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유연하지 못하다. 상용직의 고용보호가 강화되면서 상용직 일자리 기회는 감소하고 노동 이직율도 낮다.

최근 들어 내수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2.7%에서 3분기 4.5%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수준은 증가되지 못



불자 세상보기

임 배 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실직청년에게 ‘희망’을

하고 회복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만 제조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과거처럼 제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잘되는 호황업종인 전기·전자 제조업도 공장자동화로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에서 전반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높은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산업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 업종의 급격

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3%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단지 청년 실업률이 7.3%로 높은 것이 문제다. 직장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준과 취업자의 실제 직무능력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취업률이 낮다.

먼저 대졸 취업희망자는 기업의 인력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희망자의 높은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부모에 기대어 직장 없이 그냥 지내기도 영세기업이라도 피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대졸자들이 4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지불한 비용은 등록금, 책값, 학원비, 하숙비 등 직접비용과 4년간 직장에 다닐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으로서 이 모든 비용을 대학교육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1억원은 족히 될 것이다. 이 많은 비용을 생각한다면 취업조건과 체면을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해외인턴제 지원을 나서고 있고 민간업체도 해외인턴 사원을 추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직장을 찾기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물론 무한한 불무오션인 중국, 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에 가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국가가 된다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처진 어깨를 펴고 세계강대국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앞날을 보며 세계대대를 상대로 땀 실력과 꿈을 키워 나갈 젊은이가 필요하다.

불자의 눈 는설위현 기명사설

병술년 새해엔 냄비근성이라는 자조적인 외투를 벗어버려라. 인생은 자동차가 아니다. 마음대로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역사는 연속적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굴러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가 너무 많다. 아니 전문가인양 착각하는 비전문가가 너무 많다. 문제가 터지면 비전문가들이 별 때처럼 달려들어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이 진리처럼 굳어진다.

인간은 태어났서 입에 도끼를 물고 나온다. 그것을 녹여 무쇠술을 만들자. 음식을 진득하게 익히는 무쇠술을 만들자. 무슨 사건이든 한바탕 거들겠다는 습관을 버려라. 공부든 수행이든 속성이 필요하다.

변화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기성복이다. 만들어진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신발에 발을 맞춰야 하는 함정이 있다. 개혁이란 지고지선한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품과 길이가 맞게 지어 입어야 한다.

‘무쇠술’ 같은 새해를

무쇠술은 인스턴트식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인내와 속성을 기본 재료 삼아 음식을 익히는 도구다. 언론은 세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 과욕을 부려 열 발짝 앞서가선 안 된다. 무리하면 자충수를 두게 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우리 민족은 온돌이라는 결출한 난방 시설을 발명했다. 천천히 데워지나 은은하게 오래간다. 파르르 끓는 양은 냄비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민족성이다.

그런데 그 품성이 사라지고 있다. 호들갑과 조급증이 득세하고 있다. 진정으로 관심을 지속해야 할 일에는 망자의 탈을 쓰고 변대한 세상사에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경박한 훈수를 즐긴다.

그냥 내버려두자. 궁벽한 토굴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 밤을 잊고 사는 연구자, 새벽을 여는 상인들,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훈수 그만 두자. 양은 냄비를 버리고 무쇠 가마솥을 가슴에 심어 폭 고아낸 발언만 토해내자. 망둥이는 튀지 말고 숨어만 튀게 하자.

■이우성(대전대 문학과 겸임교수)

이렇게 들었다

시위와 진압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굳게 마음에 두면 그 원한은 끝내 가라앉지 않으리.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가라앉으리. <법구경>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렸던 홍콩에서 한국농민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여 홍콩정부에 의해 연행된 일이 있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농민 전용철 차가 사망한데 이어 이날 시위에서 부상당한 입원 중이던 농민 홍덕표 씨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한다. 조속히 책임자가 가라지고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동안 경찰과 시위대는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으로 상호공방을 벌이다가도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이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해왔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건이 양측의 책임공방 구실로 활용되되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은 전경대원들의 인권교육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시위대 지도부는 ‘혹시 폭력시위를 야기하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집회시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비폭력 무저항 운동’ 노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사 자기에 대해 원한과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원망은 끝내 끝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이은비(해제부지)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자비의 전화 ‘범인’으로 새출발

자비의 전화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1994년부터 시도된 사단법인화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숙원이었다. 비록 10여년이 지나서 그 속제를 해결하게 되었지만 상담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들의 감격은 남다르다. 이번 사단법인화로 불교계 유일의 종합 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는 공신력을 얻게 됐고 회원들의 활동에도 공익성을 보장받게 됐다. 더구나 요즘 정착되고 있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폭력, 자살, 우울증 등의 용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사회 범죄도 알고 보면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비통한 삶을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으로 약물이나 술, 인터넷, 음란물을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자비의 전화는 올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상담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나 공익재단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주해 대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자비의 전화 사단법인화로 불교계 상담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현실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찰마다 상담실이 설치되고, 자비의 전화 지부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 항상 상담실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황선정(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범법계 가진 범용 스님

지난해 12월 19일 동화사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봉행된 조계종 전 전체 대화상 무명당 범용 대종사의 영결식을 다녀왔다. 개인적으로는 열반하시기 한 달 전쯤 비로암에 일이 있어 갔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님을 뵈는 적이 있을 뿐이다.

스님은 열반송을 물어보는 사자에게 “열반송이 다 뭐야? 부처님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게지...”라는 참으로 스님다운 열반송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다.

다 부질없는 중생의 놀음들이 가소물 계만 느끼는 범용 스님의 소요자재하신 모습을 다시 뵈는 듯 했다. 거저 먹고 담백한 삶. 스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새삼

깊고 넓게 전해온다.

이 시대의 몇 남지 않은 진정한 선지식을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쉬울만 더해간다. 범용 스님의 원적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뒤에 가는 후학들에게 가식과 허위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박한 모습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 범용 스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김지호(롯데뉴스)

이름모를 스님의 자비행

‘인연’의 스승이라는 스님들의 자비행을 보는 것은 불자로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북 포항의 송라 보경사 부근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 겪은 일이다. 폭설과 한파로 전국이 풍풍 얼어붙었던 그날 영하의 날씨에 바람 또한 차가웠다.

어수선한 사고 현장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운전자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구경만 할 뿐인데, 갑자기 스님 한 분이 나서 입고 있는 장삼을 벗어 사고자에게 덮어 주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험한 사고현장에서 자비심으로 운전자를 보살펴 주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다.

김충길(롯데뉴스)

‘연대’ 민평

심민섭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클리닉

1. 우주의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권 + 대형자석 30개 +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방풍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혈압,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가톨릭의대 **실증자료** 또한 우울증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증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스타인은 박사기 루보스톤의 실험으로 나타내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 통증이 완연 해소되었고, 영도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적열감, 자발, 저림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가량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시시오/성심성익의정 자제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외)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 E-Mail : jibub3110@hanmail.net

한국자기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호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력)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단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족 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포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